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5)

孤山智圓法師 勉學(고산지원법사 면학) ㉔ 글

小人之於利也 雖或萬求而萬不得
소인이 이익에 있어 비록 만번을 구
해 한번 얻지 못할지라도 더욱 용맹스
레 하고 군자의 도에 있어서는 구하면

반드시 얻으나 중도에 겁을 먹고 스스
로 역부족이라 생각하는 이는 이익을
찾는 소인보다 못한 편이다.

仲尼曰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
중니 왈인원호재 아욕인 사인지의
言求之而必得也
언구지이필득야

공자 이르되, 인(도)이 멀리 있겠느냐
내가 인하고자 하면 이른다 하니
구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㉕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옥불탁 불성기 인불학 부지도
餘十有五而志于學 在再光景 曩忽老至
여십유오이치우학 임영광경 숙홀노지
歲月既深 粗知既越
세월 기심 조지기취
반복습득 殊失斯旨 曠日奚益 學不可遽
반복주식 수실사지 한박상유 학불가제
(法) 十門 垂裕後昆
인술십문 수유후곤
(功) 務學而成功 則弘
비무학이성공 조홍
(教) 復復云爾
교이부현운이

①삼학을 뒤지 아니하면 성불할 수
없다.

열반경에 이르되 대저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하였으니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
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품이 텅비어 통하여 신령토록
밝고 항상 고요하
니

만약 있다고 하
면 모양도 이름도
없음으로 없다고
하면 성스럽게 영
통한다.

욕은 다들지
않으면 쓰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아니
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群生 無始 不覺
군생 무시 불각
自迷 煩惱覆蔽
자미 번뇌복폐
遺此本明 能生
견차본명 능생
諸緣 枉入六趣
제연 왕입육취
由是 大覺 難物
유시 대각 난물

述首 說戒定慧三學之法
미명 설계정혜삼학지법
其道 微顯 示從真以起妄
기도 회현 시종진이기망
勸勵群品 令息妄以歸真
계범군품 령식망이귀진

뜻 중생이 비롯없이 스스로 미혹해
깨닫지 못하고 번뇌에 덮이고 싸여
본래의 밝음을 잃고 온갖 인연을 지
어서 몸을 굽혀 욕위에 들어가는데
이 때문에 부처께서 중생의 미혹하고
는 어두운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계·
정·혜 삼학을 시설하셨다.
그 도가 크고 넓어 진여로부터 망념
이 일어남을 보이셨고
뜻 성품에 본모기를 보이사 망상을
쉬어 진여에 돌아가게 하셨다.

龍眼

욕은 다들지 않
으면 쓰지 못하고 사
람은 배우지 아니하
면 도를 알지 못한다.

내가 열다섯에 배
움에 뜻을 두되 힘을
쏟지 못하고(임영:평
범에 나뭇잎이 늘어
지는 것) 잠깐 사이
에 늙었는지라 세월
이 깊어지고야 그 뜻을 조금 알았다.

돌이켜 지난 날 유별히 뜻 잃음을 한
탄하나 시간이 급박(인생달년에 이름)
하여 석양인지라(상유:석양이 붉·느름
나두 가지끝에 걸린 모양) 배워도 가히
미치지 못할 것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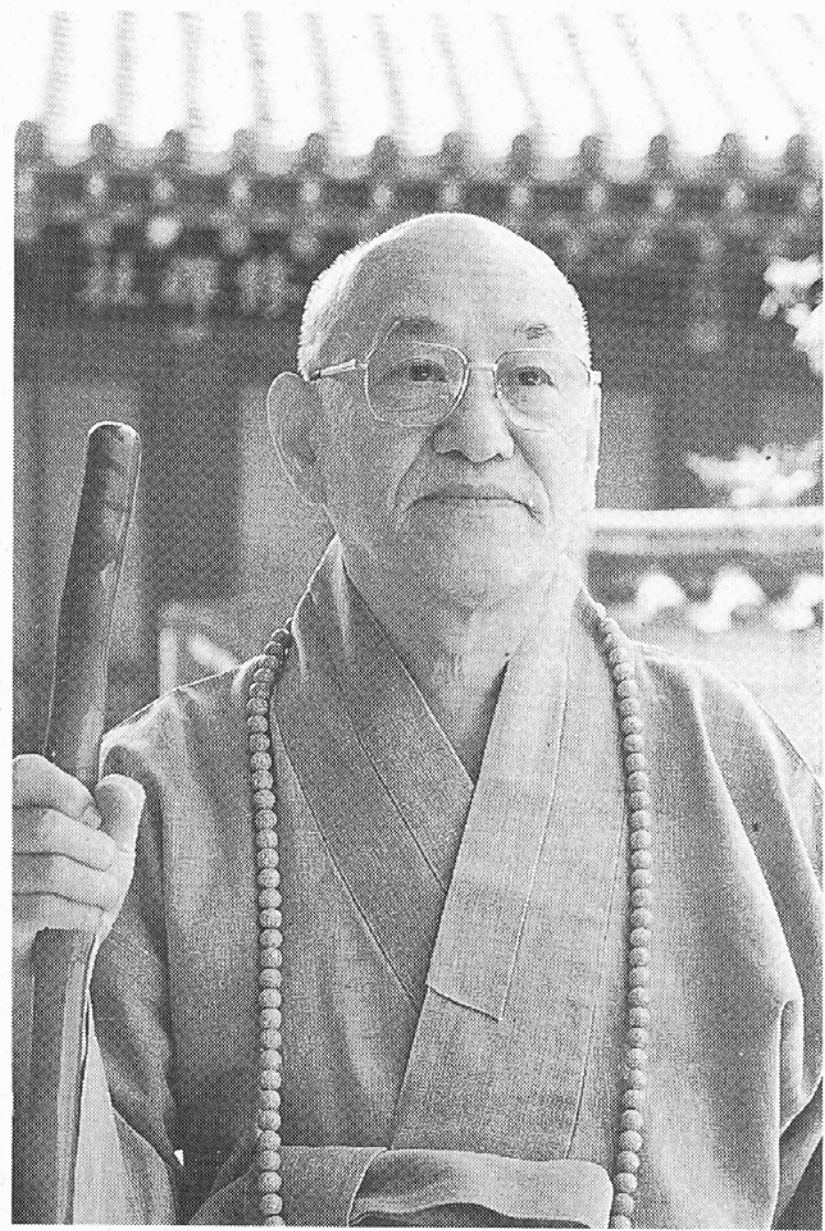
이런 까닭에 열가지 문을 지어 후배
들에게 넉넉히 펼쳐보여
바람에 힘쳐 성공케 하여 널리 가르
침이 드러나도록 돕고자 하노라

①不修學 無以成(불수학 무이성)

涅槃經云 凡有心者 皆當得成
열반경 운 凡有心者 皆當得成
열반경 운 범유심자 개당득성
阿耨多羅三藐三菩提
아노다라삼삼보리
何以故 蓋為一切眾生 皆有佛性
하이고 개유일체중생 개유불성
此性 虛無 靈明常寂
차성 허무 영명상적
若謂之有 無狀無名 若謂之無 聖以之靈
약위지유 무상무명 약위지무 성이지령

지 상 법 석

“일체만물은 나와 한몸”



능가스님 (범어사 내원암 회주)

一切男子가 是我父요
一切女子가 是我母다
故로六道眾生이 皆是父母母다.
모든 남자가 나의 아버지요
모든 여자가 나의 어머니로다
그러므로 육도의 중생이 모두 나의 어버
이로다.

이는 <범망경(梵網經)>에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영원
히 변치 않을 진리의 말씀이지요.
일체중생이 내 아버지 어머니요, 형제
동생이 된다는 이 말씀은 '내 혈통' '나의
혈통'이 아무 의미없는 구부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금가나 나가나 차가나 하는 것
은 사람들이 살기에 편하도록 인위적으로
향을 갈라 놓은 결과일 뿐이요, 근원적
으로는 혈통의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어릴때부터
천지만물이
나와 한몸임을
가르친다면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쌓여

말입니다.
우리는 전세(前世)의 인연으로 인해 잠
시 어머니 뱃속을 빌어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가 낳고 싶어 낳는 것이 아
닙니다. 천지만물이 동원되어 내 몸을 만
들고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몸을 내게 합
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인위적인 작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중생은 내 부모요 모든 사물은 내
몸이'라고 하는 말은 천지만물이 그대로
너와 내가 되고,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天地)만물은 곧 나(我)요 나는 곧
천지만물'이라는 말을 종교적 교육적 차원
에서 아들 손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
다.

'네것' '내것' '박가' '김가' 하는 식의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개별주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방종주의가 이 세상을 망치
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지만물이 나
와 한 몸'임을 가르친다면 잠재의식속에
사람과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쌓
여 남을 해치거나 자기만을 위한은 혼탁한
세상을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나타나는 만악(萬惡)이
'모든 인간이 한마음 한몸'이란 사실을 망
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
과 감정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싹트게 됩니다.
반면에 '너와 내가 한마음 한몸'임을 깨

닫게 된다면 모든 일이 이해가 되고 질서
와 순서가 잡힙니다. 모든 이해관계가 없
어져 '네것' '내것' 하는 소유욕이 사라지
게 될 겁니다.

모든 중생은 나의 부모

그러나 너와 나, 자연(自然)이 전원 별
개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대립과 투쟁으
로 점철된 이 사회는 죽고 사는 문제로 만
악이 횡행(橫行)하는 아수라(阿修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을 사랑
하자'는 '이웃을 위해 자비심을 내자'는
말들이 모두 공염불(空念佛)과 구두선(口
頭禪)으로 끝나고 말지요.

3년전간 '자비를 실천하자' '이웃을 사
랑하자'는 의침은 끊임이 없었지만, 과연
지금의 이 세상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찬
세계인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
다. 형제와 이웃간에도 이해타산만 따지는
오늘의 현실은 공동체 안에서도 자비심과
일체감을 잃은 모습을 여실이 보여주는 것

입니다.
'천지만물이 같은 뿌리요 한몸'임을 실
감하고 소신(所信)을 가진다면 불신의 사
회에서 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가르
침을 인식하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한
사랑과 자비를 아무리 부르짖을수록 아무 소
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진실
로 깨닫는다면 마음을 강요하려다도 사랑
이 저절로 배어질 것입니다.
도인들의 각 어록(語錄)에도 '천지는 동
근(同根)이요 만물은 일체'라는 말이 나온

30초 건강비법 "편작전자침" 공개

Advertisement for '편작전자침' (편작전자침) health device. Includes product image,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수신자 부담서비스' (수신자 부담서비스).